

# “불교는 마음이 고요해 지는 종교라 좋아요”

## 불교여성개발원, 고봉중고등학교 종교수련회서 불교프로그램 진행

“선생님 제 얼굴은 어떤 거 같습니까? 인상이 좋아 보입니까?”

1월 12일 경기도 의왕시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불교실이 시끌벅적 거렸다. 현재 대학 졸업을 앞둔 이윤선(고려대·27)씨가 ‘얼굴인상과 인성’에 대해 강연을 하자 소년원 학생들은 서로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눈썹이 오래 생기면 별로 안 좋은 거지 않아요?”

“선생님은 얼굴이 와 그렇게 생겼습니까?”

이윤선 씨의 강의가 시작된 지 30분 남짓 되자, 학생들은 슬슬 강의가 지겨워 졌는지 옆 친구의 눈썹을 가리키며 장난을 치는가 하면, 이 씨의 얼굴을 은근슬쩍 놀려대기도 했다. 이 씨는 그런 학생들이 마냥 귀여운 듯 강연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대화에도 즐겁게 강의를 이어갔다.

아직 학생 신분인 이윤선 씨가 소년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고봉중고등학교에서 1월 10~13일 겨울방학기간 동안 실시하는 겨울종교 수련회 때문이다. 평

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던 이 씨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 사람의 인상에 대해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불교에서도 사람이 마음과 행동가짐을 바르게 하면 얼굴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학생들은 부처님 가르침보다는 이윤선 씨와의 대화에 더 즐거워하는 듯 보였다. 평소 외부인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윤선 씨와의 만남은 특별한 날.

모든 학생들이 이윤선 씨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아니었지만, 더러는 이 씨에게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적극적으로 물어오는 학생도 있었다. 평소 여대생과의 대화를 꿈꿨던 학생들은 강의가 끝나고 간식을 먹으면서, 궁금했던 대화생활과 진로 등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김형진(가명) 군은 “밖에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뛰어 노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번 시간도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대학생들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윤선 씨는 “생각보다 아이들이 친근하게 잘 대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니 정말 순수하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1:1로 대화할 수 있는 멘토링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과 꾸준한 만남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뜻을 밝혔다.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종교 수련회는 학생들이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중 원하는 종교를 택일해 다양한 종교프로그램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번 종교 수련회에서 불교실에는 25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학교 정원의 약 10% 정도다.

타종교에 비해 현재는 적은 숫자이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인원이 적어서 더 좋다”고 기뻐한 대답을 한다. 박형식(가명) 군은



고봉중고 불교실에는 학생들이 꾸민 풍선이 연등과 함께 장식돼 있다.



학생들에게 강의 중인 영 108인 이윤선 씨. 이날 인기가 좋았다.



고봉중고 불교실 학생들이 간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

“불교실에 오면 조용하고 씩다는 느낌이 들어 좋다.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며 “가끔 스님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면 살아가는 데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고봉중고등학교는 남자 청소년들만 모여 있는 곳이지만, 불교실은 학생들이 만든 연꽃등과 풍선 등으로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학생들은 서툰 솜씨로 벽 이곳저곳에 형형색색의 풍선들을 붙여 놓았다.

어떤 학생은 빨간 풍선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자신의 염원을 담아 부처님 품안에 가져다 놓기도 했다. 그동안 간직했던 자신의 염원을 풍선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글씨가 눈길을 끌었다. 풍선에는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족 모두 오래오

사회문제 일으킨 청소년들에 따뜻한 부처님 가르침 절실 타종교 봉사자 수 많은데 ‘불교실’은 찾은 이 드물어

래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2시간여의 만남이 지나고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학생들은 이윤선 씨와의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 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한 학생이 강의가 끝날 시간이 되자 입을 열었다. “선생님, 다음에 오시면 아마 저는 없을 겁니다. 저는 다음 달에 출원하게 됐습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연 내내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다른 학생들도 이윤선 씨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이윤선 씨는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버려서 아쉽다”며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오고 싶다”고 말했다.

글=이은정 기자 soej84@r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ryunbul.com



1월 12일 의왕 고봉중고 불교실에서 열린 종교수련회 모습. 학생들이 이계경 이사를 따라 합장을 하고 있다.

## 청소년 교정교화에 불자님들 뜻 모아주세요

### 이계경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 이사

#### “불자원봉사자 적어 안타까워”

이계경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 이사는 이번 수련회의 숨은 공신이다. 이계경 이사는 4일간 진행된 수련회 기간 동안 불교반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이윤선 씨의 강연 역시 이계경 이사의 작품이다. 이계경 이사는 “학생들은 젊은 강사를 더 선호해 젊은 불자들이 멘토로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전문 강사진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이계경 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자녀의 친구들까지 참여시켰다. 실제 수련회 첫째 날에는 서울대 디자인학과 재학 중인 조현·문지영 씨가 학생들에게 디자인 개념과 실습을 강의하기도 했다.

또 김승목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의 미술치료 강연을 비롯해 불자 멘토들

에 의해 탁구 배구 축구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011년 2월부터 고봉중고등학교와 인연을 맺고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온 이계경 이사는 매달 첫째주 토요일 마다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이계경 이사는 “아이들을 보고 가면 금방 또 보고 싶어서 매달 학교를 방문하게 된다. 더 많은 것을 학생들에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불교실에 참가한 학생 수가 저조한 만큼, 심각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부족이다. 이날 불교실 강연에 참여한 자원봉사는 이계경 불교여성개발원 교정교화센터 이사와 이윤선 씨 단 둘뿐이었다. 수십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타종교와 비교할 때 초라한 수치이다.

최근 고봉중고등학교가 KBS 남자의 자격 ‘정준합창단’ 편에 소개되면서, 불교계에서도 관심을 갖는 이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1월 7일에는 월경사 단기출의 미술치료 강연을 비롯해 불자 멘토들



해 자장면을 보시하기도 했다.

이 이사는 “한창 먹성이 좋은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먹을 것 하나라도 더 사다주고 싶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잘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2월 18일부터 고봉중고등학교에서 ‘멘토링 교실’이 열린다. 많은 불자들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부처님 법을 통한 깨달음을 전파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젊은 층 포교 확대가 절실하다는 사실을 느꼈다”며 “젊은층의 포교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교정교화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빙의(귀신병)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